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외부 환경 적응 과정에 따른
상실감에 관한 작업 연구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박 영 철

외부 환경 적응 과정에 따른 상실감에 관한 작업 연구

지도교수 이 용 덕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박 영 철

박영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새로운 집단 또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적응하려는 본능을 발휘한다. 현시대에는 개인이 관계를 맺는 집단의 수도 늘어났지만 그 변화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요구되는 적응능력이 더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적응기제는 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허함이나 상실감이 표출된다. 첫째 비어있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대상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는 대상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완성된 작업들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며 개별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작업에 표출되는 공통된 심상(心象)인 상실감에 초점을 맞추어 심상의 발현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조망할 수 있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주요어 : 적응, 적응기제, 상실감, 공허함

학 번 : 2010-12187

목 차

국문초록

적응기제의 발현	1
작업의 시작	2
작업의 특징	3
1. 비어있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	3
2. 대상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	4
3. 대상에서 감정을 배제하려는 점	5
마치며	6
작품설명 및 도판	8
Abstract	22

외부 환경 적응 과정에 따른 상실감에 관한 작업 연구

적응기제의 발현

본인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일이 부담스럽다. 이전까지 익숙해져 있는 몸과 마음을 되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새로운 환경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본인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마치 한 명인 것처럼 보냈다. 부모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똑같이 정해져 있었다. 동생과 본인은 생김새는 물론 취향까지 비슷해져 갔다. 이때 느꼈던 동질감이나 소속감에 대한 감흥은 본인이 외부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본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스스로 알아 감에 따라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들은 본인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어떻게든 외부 환경과 본인을 맞추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새롭게 다가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든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한다.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당면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기제¹⁾를 사용한다. 이러한 적응 기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심리적으로 합리화, 부정, 전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납득시키는 방어기제 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감

1)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

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어기제는 이전에 구축해 놓은 인생관이나 신념을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 정신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

현시대는 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외적 상황들이 동시 다발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발현되는 적응기제들은 자아의 붕괴를 막고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인은 이런 적응기제를 통해 수정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였다. 본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들은 적응기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일로 느껴졌다(외부적으로 설정된 목표치와 실현 가능한 목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억지로 받아들이는 일).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본인은 외부 상황에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나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막연히 외부 상황을 벗어난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작업의 시작

작업의 시작은 자소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나약하고 불분명하며, 금방이라도 다른 색으로 물들 수 있는 모습이다. 이는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본인의 특징들을 스스로 지워내는 결과를 낳았고, 특정 상황이나 집단 내에 속하지 않은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쩌면 특정 상황에 따라 본인은 적절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본인의 성향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된다. 타인을 인식할 때 개성이나 행동, 특징들이 바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처한 상황들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그런 외적이 부분에 따라 취한 행동, 특징들이

왜곡되어 인식됨을 느꼈다. 이는 현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본인의 독특한 시각이며 이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업의 특징

1. 비어있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

작업의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비어있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는 독특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입체 작업에 구멍을 빼곡히 뚫는 작업들은 대상의 입체감이 사라지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작업방식이 환기시키는 느낌들은 전반적으로 작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상실감이나 부재를 표현하고자 해왔다. 단순하게 형상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보다 인체의 형상을 만들고 난 뒤 그 형상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통해 완성된 형상은 작업의 과정을 연상시키고 구멍을 뚫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연의 모습을 지워야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작업 방식이며, 작업 과정까지 작품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작업방식이다. 결과물은 만지면 부서질 듯 위태로우며 배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딱딱한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천을 사용하고 있다. 천에 구멍을 뚫어 인체의 형상을 그린 작업은 이전 작업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인체의 일부분이 비어있는 작업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익명성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보는 사람의 추측으로 완성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익명성을 제시하는 방법은 작품<Family>에서 볼 수 있다. 친형 결혼식 사진에서 의복을 입

고 있는 인물들의 얼굴과 손 등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없애는 사진 작업으로, 결과적으로 작업 속에 인물들은 지워지고 그들이 입고 있던 의상과 신발만이 자리에 남게 된다. 특이한 점은 의복만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객은 그것이 의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형상을 읽는다는 점이다. 이는 결혼식과 결혼식 의복이라는 통념된 사회구조 내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고, 특정인물을 지칭하고 있지 않는다는 효과를 통해 그 당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의도였다.

두 번째 방법은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보는 사람의 추측으로 완성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품 <Swimmer>에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는 수영선수의 바지와 모자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진 작업 <Family>와 다른 점은 작품이 특정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 종목의 이름만 들어도 이미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정 자세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통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수영복 바지와 모자만으로 관객은 표현하지 않은 인체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구현해내게 된다. 하지만 이런 표현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최초 의도인 부재를 부각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 대상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

작업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표출되었다. <자소상>시리즈에서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억누르거나 잃어야 했던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Family>작업에서는 가족사진을 찍는 행위가 행복한 기억을 남기기 위한 행위 보다 형식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Swimmer>에서는 타인을 인지하는 방법이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표현하였고, <Ultimate utopia>와 <Fall>작업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성취보다 사회적 성공이라는 막연한 이상을 꿈꾸는 현실

을 표현하였다. 또한 <Hanged man>에서는 보이지 않는 억압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표현하였으며 <Man>작업에서는 외부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구멍을 뚫는 작업은 구멍을 뚫는 행위보다 배경이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더욱 부각되어 의도를 벗어나 긍정적인 느낌의 오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도를 뛰어넘는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부정적인 상황이 표현되는 현상의 근간은 아마도 스스로에 대한 상실감일 것이다. 자아의 상실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문제는 현실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스스로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모든 원인을 외부 상황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이런 생각의 과정 중에 제작된 작업들은 스스로에게 위로감을 주기도 하였다. 점점 늘어가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작업들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다. 특히 구멍을 반복적으로 뚫는 공격적인 행위는 원인 모를 통쾌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3. 대상에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는 점

본인은 작업에 대상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작업을 하는 편이다. 작품들은 특정 현상에 속한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성되며 표정이나 몸짓으로 어떠한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본인은 이런 부분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았다.

예술을 ‘현실을 중시하는 예술’과 ‘상상을 중시하는 예술’로 나눈다면 한쪽은 대상 혹은 외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중시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중시한다. 즉 이 세상을 모방하고자 하는 예술과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작업은 전자에 가깝다. 항상 현실세계에서 느

끼는 현상을 주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할 뿐 그 현상을 벗어난 가상세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현시대를 맞이하는 방식과도 통한다. 본인은 스스로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나 현 상황을 벗어나 존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는 그대로 작업에 드러나며 작품 속 인체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채로 완성된다.

마치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 작업들은 <자소상>시리즈를 거쳐 본인이 타인을 인지하는 방법, 현 시대의 가족상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 중이다. 작업의 방식 또한 전통적인 소조 방식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사진 작업은 기존에 만들던 작품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실재감을 경험하게 해 주었고, 천 작업을 통해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원하는 표현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 채 완성된다. 또한 상실감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작품들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독립적인 상황에 놓인 각기 다른 작품들이 비슷한 느낌을 풍기며 한 곳에 전시되는데, 이는 작품을 개인적인 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 현시대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위한 본인의 의도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업의 출발지점이 되었지만 본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모든 사람들 또한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의 접촉을 통해 본인을 만들어 나가며,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없애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필요라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내적인 결정인지 외적인 결정인지에 따라 그 상실감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상실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당연한 삶의 일부이며 큰 관점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묵인되어왔다. 본인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삶의 순환 구조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의 작업들은 일종의 푸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업 방식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다. 불현듯 머릿속에 완성된 작업의 이미지가 떠오르며 머릿속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런 작업방식은 진행 과정상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상단계의 이미지가 완성단계까지 사고의 전환 없이 직접적으로 구현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본인이 효율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도 이런 사고방식에 한계를 느끼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작업의 다양성을 방해하고 본인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이 또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더욱더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품설명 및 도판

<작품 1> **Self statue 2011**, 합성수지, 30X60X170(cm), 2011

<작품 2> **Family**, 디지털 프린트, 60X40(cm), 2010

<작품 3> **Swimmer**, 합성수지, 150X60X120(cm), 2010

<작품 4> **Hanged Man**, 합성수지, 30X15X40(cm), 2012

<작품 5> **Ultimate utopia**, 합성수지, 30X60X170(cm), 2012

<작품 6> **Fall**, 합성수지, 20X25X40(cm), 2012

<작품 7> **Man**, 천(폴리에스테르 원단), 170X70(cm), 2012

<작품 1> Self statue 2011

몇 년 전 중요한 학교 체육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그 당시 굉장히 춥고 살짝 비가 왔던 걸로 기억한다. 본인은 소화기관이 튼튼하지 않아 찬 기운을 오래 쬐면 배탈이 나고 감기로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대 축구부내에서의 본인의 위치와 역할은 막중했고 본인은 다른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경기 후 며칠을 앓아누웠던 경험이 있다.

본인은 스스로의 행동에서 어떤 모습이 본연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대의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자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들었다. 특정 집단은 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아의 완성 과정은 외부적 틀에 맞추어 본연의 모습을 없애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소상을 만든 후 구멍을 뚫어 형상을 없애는 순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이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까지 작품으로 포함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완성된 형상은 결과 안이 텅 비게 되고, 가느다란 선만으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형태적 특징은 작품이 놓이게 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작품 1> Self statue 2011, 합성수지, 30X60X170(cm), 2011

<작품 2> Family

본인의 집 거실에는 한 장의 가족사진이 걸려있다. 친형의 결혼식 사진으로 찍을 당시는 몰랐지만 현상되어 거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자 어디서 많이 보았던 이미지들이 중첩되었다. 어느 집에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형식과 배치로 가족들이 서있었고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가족사진이 획일화되고 형식화된 현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과,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공통된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가족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족 구성원의 입학, 졸업, 결혼, 출산 등의 주제가 대부분이다. 당시 촬영된 이 가족사진도 가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결혼식 행사의 일환으로 촬영된 사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 이후 집집마다 걸려있는 가족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한 순간을 간직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생각보다 가족사진을 찍고 거실에 걸어놓는 행위를 통해 본인들의 가정은 행복하다는 위안을 얻는 듯이 보였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형식화 된 가족사진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작품은 결혼식 사진의 인물 부분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지워낸 후 없어진 공간들을 어색하지 않도록 다시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완성된 결과물은 얼굴사진만 들어간다면 다른 누군가의 거실에 걸리게 될 정도로 형식적인 틀처럼 보이길 원했다. 또한 사진작업은 의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스튜디오나 세트장을 빌려 결혼의복들만을 전시해 두고 사진을 찍은 듯한 실재감을 불러온다. 이는 본인이 진행해 오던 소조 작업의 한계점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작품 2> Family, 디지털 프린트, 60X40(cm), 2010

<작품 3> Swimmer

대부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 행동 등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은 이런 첫 인상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 등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 여전히 같은 말투와 행동을 사용하지만 그 언행이 이전과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본인이 타인을 인지하는 방법이 개성이나 인격 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업, 직책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은 현시대에서 본인이 타인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작업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작업은 외부적 조건들로 특정인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본인의 의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수영복 바지와 모자만 표현되어 있지만 보는 이들은 수영복 바지와 모자의 위치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형상을 상상하게 되며 모자에 적혀있는 기호들을 통해 만들지 않은 인물의 형상은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물을 상상하게 만드는 작업방식은 일종의 부재나 상실감을 표현하려던 최초의 의도를 넘어 상상속의 존재의 이미지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초의 의도와 표현방법 사이에 더욱 신중할 필요성을 느낀다.



<작품 3> Swimmer, 합성수지, 150X60X120(cm), 2010

<작품 4> Hanged Man

언제부턴가 본인은 해야만 하는 일들에 쌓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일들은 원인이거나 목적이 불분명하였으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행하던 일들이었다. 자의를 상실한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피동적인 행동들이 점점 더 편해지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떠올릴 수 없었다.

작품의 별거벗은 인물은 홀로 무엇인가에 매달린 형태로 서 있다. 아무 것도 입지 않고 있는 점을 통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고, 매달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매달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지 않는 방법으로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혹은 비가시적인 억압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현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재작하였다.



<작품 4> Hanged Man, 합성수지, 30X15X40(cm), 2012

<작품 5, 6> Ultimate utopia, Fall

본인은 공상을 즐기는 편이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활발하게 공상을 펼쳐 나가는 시간이다. 공상의 주제들은 터무니없는 초능력을 갖는다던가 무한대의 돈을 갖는 것 등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가끔 공상의 강도를 낮추어 본인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작가로서 명성을 얻어 유명한 모 작가처럼 좋은 작업실과 좋은 차, 집 등을 갖게 되는 상상이다. 이런 공상을 통해 본인의 이상적인 미래관이 상당히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내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장을 입고 있다. 본인은 정장이란 소재를 현대에서 흔히 표현하는 성공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Ultimate ideal>에서는 정장을 제외한 인체부위에 구멍을 뚫는 형식으로 작업을 제작하였다. 이전 작업 <Swimmer>에서 작업의 특성상 수영복 바지와 모자를 천장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낚싯줄이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 부분이 신경이 쓰였다. 이 작업을 통해 <Swimmer>를 만들면서 느꼈던 한계점의 보완 가능성도 찾아 볼 수 있었다.

<Fall>작업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Ultimate ideal>와는 다른 표현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작품 속 정장을 입고 있는 인물은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바닥에는 자신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정장과 부패한 얼굴이 있고 작품 속 인물은 이를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다.



<작품 5> Ultimate utopia, 합성수지, 30X60X170(cm), 2012



<작품 6> **Fall**, 합성수지, 20X25X40(cm), 2012

<작품 7> Man

형상을 없애거나 지워서 완성되는 작업의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하던 중에 처음 시도한 연구는 연필로 검게 칠한 종이에 지우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다. 연구 과정 중에 우연히 종이에 구멍을 내어 보았고 종이에 구멍을 내어 인물의 형상을 그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종이라는 재료의 유연한 특성이 이전에 작업하던 딱딱한 형태의 결과물들과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더 유연한 재료인 천을 이용하였으며 평면에 인물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물의 명암에 따라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완성된 결과물은 관객의 움직임에 생겨나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형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선명하고 딱딱하게 표현되던 이전 재료의 한계를 넘어 더욱 흐릿한 인상의 인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작품 7> Man, 천(폴리에스테르 원단), 170X70(cm), 2012

Abstract

A Research regarding the Sense of Loss following Adjustment to External Environment

Park, Young Chul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ed with a new situation or social group, people act from their natural instinct for adapt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the individual must associate with numerous social groups, which rotate and evolve at a rapid pace, so that the individual must quickly adapt to a continuously changing environment. In order to do so, individuals sometimes make use of adjustment mechanisms of which they themselves are unaware. Such mechanisms sometimes cause psychological conflict, as reality is accepted without previously resolving inner conflicts.

In my work, I express the resulting sense of emptiness and loss through three characteristic features. Firstly, there is a prevalence of

empty spaces or holes in the material of my works. Secondly, the objects are in negative situations. Thirdly, there is minimal emotional tone to the objects. Through these features, my works, though situated independently with distinct narratives, give off a similar feeling.

In this thesis, I have focused on the recurring motif of the sense of loss, figuring out its origins and tracing the various ways in which the motif expresses itself. Through this process, I was able to project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s. A variety of materials and methodology remain to be discovered through further investigation.

**keywords : Adaptation, Adjustment Mechanism,
Sense of Loss, Emptiness**

Student Number : 2010-21287